

社會學 교양교재 개발의 意義와 展望

— 새로운 敎養敎材 개발 ④ —

俞 八 武

(翰林大 社會學科)

새로운 敎養敎材 개발

1. 學問의 主體性 확립과 土着化의 과제
2. 새로운 政治學을 위한 모색
3. 새로운 韓國史像과 敎材 開發
4. 社會學 교양교재 개발의 意義와 展望
5. 哲學
6. 女性學

1. '國籍 없는 사회학' 과

'民族的·民衆的 사회학'

그동안 한국사회학의 연구와 교육을 주도해 온 主流 사회학의 가장 큰 맹점은 한국사회에 관한 사회학이론의 개발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학이 스스로 몸담고 있는 韓國社會의 현실을 연구대상과 교육내용으로 삼지 않고 주로 미국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해석·소개하는 데 치중해 온 것은 여러 가지 의문과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누구를 위한 사회학인가”라는 의문, “국적없는 사회학”이라는 비판은 그와 같은 한국사회학의 非한국

적 성격, 따라서 비현실적 성격을 거당하는 의문과 비판 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주류 사회학을 비판하고 사회학의 민족적·민중적 성격을 중시하는 흐름이 싹트게 된 것은 이미 '7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무비판으로 일관했던 구조기능주의 및 실증주의 사회학을 대신해서 이 무렵에 나타난 새로운 흐름은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인간(인도)주의 사회학', 학문의 비판적·실천적 성격을 강조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학문의 실천적·민중적 성격을 강조하는 증속이론과 제3세계론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되고 커다란 勞를 형성하게 된 것은 '80년대 초반 '광주항쟁'을 거친 이후였다.

이 무렵에는 특히 미국에 대한 증속성, 분단시대의 고통, 국가권력의 反민중적·反민중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판적 인식을 공유한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 및 젊은 교수(소장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단체들을 조직하여 '민중적·민중적 사회학'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연구 및 교육의 공

간으로 삼았다. 이는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을 통한 연구와 교육이 민족적·민중적 성격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말미암아 대학의 연구와 교육은 二重構造를 지니게 되었다. 기성의 '제도권'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교육은 대다수 학생들에 의해 외면당하거나 형식적으로 취급되기 일쑤였고, '제대로 된 연구와 교육'으로 간주된 것은 이들 스스로가 조직한 학회나 연구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와 교육이었다. 1984년에 생겨나 현재 수십 명의 사회학 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루어 활동하고 있는 '한국산업사회학회'(회장 이종오 교수, 계명대)는 이와 같은 흐름을 배경으로 생겨난 대표적인 연구단체의 하나이다.

'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민족적·민중적 시각에 선 새로운 사회학과 사회과학은 학생들로부터 광범한 호응을 얻고 확산되어 갔다. 그 결과 서점가는 소위 社會科學 출판물들로 가득차고, 대학에서는 교과과정 개편의 문제, 교원 신규임용 문제 등이 주로 학생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당국과 마찰을 빚어내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해결되기도 하였으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민족적·민중적 시각에 선 강의는 대부분 젊은 세대의 시간강사층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이 소장학자들과 민족적·민중적 시각을 가진 교수들은 '새로운 사회학'과 사회과학을 강의하는 데 적합한 教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인 교재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성격의 새로운 교재들이 국적없는 주류 사회학의 강의교재들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대체교과서'라고 불렀으며, '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되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학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교재들 가운데에는 『사회과학개론』(윤한택·조형제 외, 백산서당)이 이미 1987년에 출판되었으나 『한국사회의 이해』(장상환·정진상 외, 한울출판사), 『한국사회론』(김진균·조희연 편, 한울출판사), 『새로운 사회학강의』(한국산업사회학회 편, 미래사) 등 주요한 사회학 교양교재들은 모두 '90년 2~3월 사이에 출

판되었다. 그 뒤를 이어 '90년 9월 『사회과학개론(1)』(박영호·이삼열 외, 백산서당)이 출판되는 등 매학기마다 새로운 대체교과서들이 출판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양교재의 수준을 넘어 전공과정 교재도 개발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강의경험과 새로운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판을 내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국산업사회연구회는 '91년 11월 전공과정 교학년 수준에 맞는 지식사회학 및 이데올로기론 분야의 교재 『한국사회와 지메이태올로지』(녹두)를 펴냈으며, '92년 3월에는 『새로운 사회학강의』(개정판, 미래사)를 냈다. 이밖에도 이 연구회에서는 전공과정에 해당하는 『산업사회학』과 『노동사회학』 교재를 개발하는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대체교과서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것들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평가함에 있어서 첫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새로운 흐름에서는 '한국사회론' 또는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점과 사회학과 아울러 '사회과학'이라는 명칭도 사용한다는 점이다.

2. '새로운 사회학'에 의한 사회학의 性格 變化

우선 주류 사회학의 무국적성과 보수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새로운 사회학 또는 민족적·민중적 사회학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한국사회의 性格 또는 社會構成體의 규정을 둘러싼 論爭으로 발전했으며, 논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규정되었다. 그 하나는 대외종속성 및 분단 상황으로 집약되는 '民族矛盾'(민족 간의 모순관계)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서 비롯되는 지배계급과 그밖의 피지배계급 또는 민중 사이의 '階級矛盾'(자본주의적 계급사회의 모순)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두 가지 모순들에 의해 조건지워진 것으로서 '정착권

력의 非民主性'이었다. [한국사회의 정치권력은 대의종속성으로 인해 배판적 성격을 지니고 이로 말미암아 자국민의 이익과 의지를 배반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지배-착취관계로 인해 빚어지는 민중의 저항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지배계급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심 전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회학'의 연구영역에는 현대사회론과 산업사회론 대신에 한국사회론과 자본주의론, 계층이론 대신에 계급이론, 사회변동론 대신에 사회변혁론과 국가론,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 대신에 맑스주의 연구방법론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자신도 몇 가지의 성격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중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학문의 實踐的·黨派的 성격이 거의 극단적인 형태로 강조된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치학·경제학·역사학·철학 등 인접 학문분야들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綜合 사회과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연구자가 어떤 이론을 하느냐, 예컨대 계급이론을 하느냐 계층이론을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방법론적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 편의 사회학'이나 '적 편의 사회학'이나 하는 평가,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이 가해졌다. 후자는 흔히 '제도권 사회학', '보수사회학', '부르조이사회학' 등으로 지칭되면서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형식적으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새로운 사회학'은 이처럼 기존의 주류 사회학과 경계를, 그리고 심지어는 적대관계를 뚜렷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 학문분과들 중 민족적·민중적 관점에 선 '새로운 사회과학' 분과들과는 경계를 허물고 넘나들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사회학이 한국사회론, 자본주의론, 변혁론, 국가론, 맑스주의 방법론 등 딱히 사회학만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고 맑스주의 페리다임의 특성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민족적·민중적 관점에 선 사회과학 분과들은 사회학·경제학 등 분과학문 명칭으로 불리기보다는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관행마저 생기게 되었다. 이때의 사회과학이란

물론 인문과학·자연과학·사회과학으로 분류할 때의 사회과학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학', '새로운 정치학'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흔히 '사회과학서적' 또는 '사회과학출판사'라고 할 때의 '사회과학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사회학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특성들은 앞서 소개한 교양교재 또는 대체 교과서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고 있다.

3. '새로운 사회학'의 特徵과

주요 講義內容

우선 윤한택·조형제 등이 지은 『사회과학개론』은 제목부터 사회학개론이 아니라 사회과학개론으로 되어 있으며, 전반부는 자본주의 사회론(자본주의사회의 기초이론), 후반부는 한국사회론(한국사회의 변동과 구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2개 장 중에서 절반 정도만 사회학 전공자들에 의해 쓰여졌고 나머지는 경제학·정치학 등 인접 학문분과 전공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제 1부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세계자본주의의 역사와 구조', '자본주의사회의 계급분석', '자본주의국가의 형성과 기능', '대중문화의 위상과 기능',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 등의 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 2부는 '전자본주의사회의 성격', '식민지시대의 사회와 민족해방운동', '해방과 분단의 과정과 의미',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 '한국사회의 계급구성', '한국농업의 전개과정'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서는 사회를 비롯한 사회과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과학개론』이 대부분 학위과정에 있던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인 데 반해 『한국사회의 이해』는 경상대에서 교양과목 '한국사회의 이해'를 담당했던 전임교수들에 의해 집필되었다. 이 책 역시 사회학전공 교수뿐 아니라 경제학이나 법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함께 집필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에서는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기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 2부에서는 한국사회를 역사적이고 국

제한적인 배경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 제 3부에서는 한국사회의 구조(토대, 계급구조, 상부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끝으로 제 4부에서는 변화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운동을 다루고 있다.

같은 시기('90년 3월)에 나온 『한국사회론』도 역시 사회학·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학·정치학·교육학 등 多分科學間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개론』은 대체로 학위과정중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해』는 같은 대학의 전임교수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재인 반면, 이 책은 여러 대학의 전임교수들과 학위과정중인 젊은 연구자들의 合作으로 쓰여졌다. 이 책 역시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한국자본주의 발달사’, ‘한국국가와 정치의 역사적 전개’,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변동’ 등 총론적인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 뒷부분에는 ‘계급구조’, ‘노동문제’, ‘농업문제’ 등 각론적인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새로운 사회학강의』 역시 학위과정의 젊은 연구자들과 여러 대학의 전임교수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교재라는 점에서는 『한국사회론』과 같지만, 작업에 참여한 필자들은 대부분 한국산업사회연구회라는 하나의 연구단체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사회학 전공자들이었다. 이 책은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사회학’이라는 분과학문적 성격이 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구성의 면에서 앞의 것들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에서는 사회의 구조와 발전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 2부에서는 이같은 이론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들을 분석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 분야의 ‘대체 교과서’들은 이밖에도 경제학전공자들이 주축이 되어 쓰여진 박영호·이삼열 외의 『사회과학개론(1)』(백산서당), 경성대 교양과목 담당교수들의 두번째 합작품인 장상환·김의동 외의 『제국주의와 한국사회』(한울) 등 여러 종이 출판되었

는데, 교양과목 분야의 교재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자 근래에는 전공과목 분야로 가지쳐 나가거나 개정판을 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업사회연구회가 『새로운 사회학강의』에 이어 '91년 11월에 펴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녹두)는 연구서의 성격이 가미된 지식사회학 및 이데올로기론 분야의 대학교재로서 그 내용수준이 고학년 전공과정에 맞추어져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에서는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분석·비판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 2부에서는 각각의 이데올로기 영역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그리고 제 3부에서는 이데올로기 극복과 변혁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회는 이와 함께 '92년 3월 『새로운 사회학강의』의 개정판(미래사)을 만들어 냈다. 이 개정판에서는 특히 제 1부(‘사회적 구조와 발전의 이론’)의 3개 장이 개편되어 기성의 사회학 이론이나 관점들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밖의 장들도 대부분 기성의 주류 사회학 또는 주류 사회과학의 이론이나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서술이 시작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이 책의 개정판 서문에서 초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내용이 어렵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급적 평이한 문체로 예를 많이 들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새로운 교양교재 개발의 意義, 限界, 그리고 展望

이상에서 우리는 민족적·민중적 시각에 선 새로운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교재 개발의 現況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양교재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사회의 構造와 變動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탐구한다는 사회학이 정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국사회라는 현실사회를 주요한 탐구대상으로 삼지 않거나 미국식 표준사회학의 보편이론

에 입각해서 극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 왔다는 데 있었다. 한국 주류 사회학의 이같은 결정적인 문제점은 광우항쟁이나 민중세력의 신장 등 여러 가지의 정치적·사회적인 변화를 계기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같은 비판은 결국 민족적·민중적 사회학을 탄생시킨 것이었다.

이 새로운 사회학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교양교재들의 내용을 개관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韓國社會를 연구 및 강의의 중심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은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현실사회 분석이고 종래의 주류 사회학이 바로 이 부분을 소홀히 해 왔다는 데에 비추어 볼 때 막중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사회학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회학의 공헌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학문의 實踐的 聯關性을 강조하고 분명한 한 점, 종래에는 소홀히 쉬웠던 사회문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기시킨 점, 그리고 이론 및 방법론적으로 맑스주의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정착시킨 점 등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학 교양교재들이 이러한 막중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교재들이 내용구성 면에서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냐,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지식들이 얼마만큼 깊이와 전문성이 있는냐를 문제로 삼는다면, 대체적으로 아직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재들은 또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맑스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분석적으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천편일률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주제와 접근방법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소위 제도권 이론들과의 냉정한 斷絶 속에서 교과서적인 맑스주의 이론만을 협소하게 한국사회에 적용시키는 가운데 전문성이 낮은 수준에서 현실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

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물론 새로운 흐름의 역사가 짧고, 따라서 그 흐름에 속하는 연구자들의 연륜이나 지식축적의 정도가 짙을 수밖에 없고, 수준급에 있는 연구자의 수도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판하기는 쉽지만 代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성의 교과서들을 새 것으로 대체한다는 뜻을 지닌 ‘대체교과서’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준의 교재가 되려면, 기성의 것들도 충분히 소화하여 새로운 것으로 살릴 것은 살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기성의 맑스주의 패러다임도 ‘교과서적으로’ 이식하려 하기보다는 한국적 시각에서 충분히 걸러지고 발전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론은 이론대로 지나치게 추상적인 수준에서 맴돌고 분석은 그 반대로 지나치게 구체적인 수준에서 맴돌기 때문에 생기는 양자 간의 괴리현상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교양교재의 내용은 보다 더 풍부해질 것이다.

다행히 근래에는 이와 같은 反省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위기상황을 계기로 한층더 가속화되고 있다. 심지어 소장학계의 일각에서는 맑스주의 패러다임을 포기하는 경우들조차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반면 기성학계의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보수적인 목소리를 높이며 새로운 흐름의 성장을 음양으로 차단하는 경우마저 늘어나고 있다. 이는 '89년 겨울에 열린 한국사회학대회에서 기성학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意義를 적극 평가하고 公認하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대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불과 몇 해를 사이에 두고 학문이 쉽게 시류에 흔들리는 것같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는 오히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새로운 사회학의 흐름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財政的 지원과 사회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